

연중 제 9 주 일

기도서 P. 360

제 1 독서 (신명 11, 18, 26-28절)

제 2 독서 ( 로마 3, 21-25, 28절)

복 음 (마 태 7. 21-27절)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려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성령 안에서

박 중 신 신부

나는 죄인인가?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매일 미사를 바치는 사제인 나는 참으로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인가?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같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로마 3, 10).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모여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예수님과 가장 심각하게 대립되었던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고 준수한, 가장 하느님과 가깝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두가이파와 바리새이파 사람들이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직자, 수도자, 경건한 신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으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어도 천국을 획득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느님의 참 뜻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훈계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항하였다. 그들의 생각이며 행동이 누구를 위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었고, 탈을질을 하되 목표없이 뛰었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고(고린토 전서 9, 26)있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에페소 2, 8)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로마 8, 9).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꾼이고, 그분의 종이며 도구이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말씀을 듣자! 매일 만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면,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떨시하지 마십시오(테살로니카 전서 5, 19-20)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묵묵히 따라오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으셨다.

「선생님,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요한 1, 38)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싶어한 것은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묵으시는가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예수를 잠깐 만나 뵙는 것으로는 부족하였고, 예수 곁에서 항구 하게 변함없는 생활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사도들의 역사는 최초의 첫째이 지서부터 예수를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요한 18, 4). 당신을 잡으려는 병사들에게 물으신 예수의 질문이다.

그것은 최초의 두 제자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요한1, 38)하고 물으셨던 질문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마르코1, 37)라고 하는 귀절도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적절하게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 편들기 위해 그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를 찾고 있다. 아아 적어도 이 두 부류(部類)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다면! 하지만 슬픈 일로서, 죄인인 우리는 모두 단속적(斷續的)이긴 하지만, 이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과 더불어」—한국 명철 발행, 차근호·최봉희 공역—에서)

## 숲 정 이 산책



「교회의 사명」



# 나의 작은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

—당신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일수도—

순정이 담당자 귀하.

한 인간이 살아 있음이 죽음보다 못할 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느냐, 인간이 아니냐는 가부(可否) 속에서, 목석같은 식물인간일지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어야 옳다는 견해가 맞을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으로서 가난 때문에 그의 생이 온통 고통과 아픔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상처는 다시 피를 더 흘리시겠지요.

선생님, 유감스럽게도 가난한 나무의 열매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한 아이의 눈물을, 죄없는 순수를 보며 견딜 수 없어 이 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하소연에 덩그러니 잊혀져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다는 희망하에 말씀드립니다.

인간,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작은 그리스도는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는 김준수라는 아이입니다. 마을을 가정방문 하면서, 가난이 몸에 풍겨올 때마다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병.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십리, 큰 병이나면 죽는 것이 편한 형편입니다. 그렇다하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작은 생명이 햇빛을 받으며 날마다 신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소아마비인줄 알았는데 팔수염이라 하였습니다. 치료를 했다는데 잘못되어 지금도 아프고 고통이 나온다고 합니다. 날마다 아프기에, 더욱 사랑스런 자식이기도, 가난을 원망하는 홀어머니. 눈 하나 발 하나 짓지를 앓고 있었읍니다. “돈만 있으면 치료를 시킬 터인데, 돈이 없어 약간 조금씩 줘요. 밥먹기도 곤란한데, 수술할 돈이 없어요.”하는 말을 들었을때 가슴이 찢개지는 것 같았읍니다. 차라리 죽으면 한때만 마음 아프지, 보고 있을 수 없답니다.

도대체 돈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가난한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여유있는 자들의 한자리 술값, 사치의 다이어받지 하나면, 아이의 고통 집안의 고민이 사라질텐데... 나는 나의 가난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적은 없었습니다. 내월급 몇달치 보태어야 하숙비 제하면 몇푼 안되어 업무를 낼 수 없는일. 어쩔가 망설이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길기에, 그리스도의 기적은 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이들이 살아있고, 어둠속에서 살 이들이 빛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죄없는 생명을, 순수한 싹의 치료를 도와 주십시오. 언제나 어머니께서 업고 학교에 왔는데, 며칠간 결석이었읍니다. 병원에 갔다고 하더이다. 또 돈 몇푼 꾸어 우선 달래는 모습이, 그리고 돌아서는 발걸이 세상을 원망하는 눈길에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와서 한번씩 웃을때면 천사같은 아이의 맑은 영혼이 아른거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지 않았으나 물으니, 스므살 넘은 형이 있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착한 영혼은 긴긴 밤을 울어야합니까?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사회는, 양심있는이는 눈을 돌려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가난속에서 억울함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어린 가슴에 따스하게 비쳐야 합니다.

따스한 입김으로 생명을 따듬겨려야 합니다. 선생님, 어느날엔가 어느 먼 산골에 한 아이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뼈속에 고통이 썩은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께 신의 은총을 빌면서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울북리 울북 국민학교  
박 안드레아 드림

## (현시) 성 모 상 (—성모의밤에) 금산본당 김 환 식 (가톨릭 문우회원)

하얀 너울에 장미화관(花冠)  
하늘껏 사랑의 눈길

눈물마저 사루어 올리는  
한밤의 촛불처럼

울릴수록 애타는 정  
하나의 종이 되어

가녀린 손 마더로  
은 누리 한(恨)을 바쳐들고

하늘과 이승사이  
미움도 사랑으로

헤어 넘는 목주알마다  
어머니, 어머니시여

차마 못 떨구는  
거룩한 손이여.

한둘레  
태어난 빛이  
무지개로 셉니다.

해질녘  
빼구기 피울음으로  
죄지는 손 모뎁니다.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신원 건축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운패 분사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분사 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 사회정의 세미나와 정의평화 기원미사 보고

### □ 사회정의 세미나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3차 사회정의 세미나가 지난 5월29일 11시 반부터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있었다. 참가자는 성직자 36명(타교구 신부 3명 포함), 수녀 2명, 계화도 주민(부안 청호공소 교우) 3명, 농민회 입원 3명, 뜻있는 교우 6명(남 4, 여 2), 기관장 3명(성모병원 원장신부, 성심·해성 종교감신부), 관심있는 시민 1명 정의평화 위원(평신도) 3명으로 모두 56명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주교회가 개간한 계화도 농지에 관한 보고」와 「가톨릭 농민회의 당면문제」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발표를 듣고 계화도의 문제점·동일방직 사건·합평 고구마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 정의평화 기원 미사

이날 오후 8시에는 전동성당에서 사제단 35명이 공동으로 집전하는 정의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50여명의 수녀(수련자 포함)와 30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미사 끝에는 〈합평 고구마 사건〉과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미사지향의 전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동일방직 쪼잔이들은, 뭇물병에 걸렸을때 약으로나 먹는다든 똥물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모자라서 먹고 쫓겨났습니다.

100억을 수출의 역군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니, 아마 아직 덜 자란 나무로 보아 거름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고맙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합평에서 고구마가 썩었다고 하여 제값을 내라는 농민들의 투쟁이 309만원의 보상을 받고 끝나, 그래도 좋은 세상인가 싶었더니, 고구마 사건과 관련된 부정이 80억을 넘는다니 웬말입니까?

100억을 수출을 올리기 위해, 외국에 싸게 파는 상품값의 차액을 이땅의 소비자들이다 감당해내는 처지에, 참깨·마늘·고추까지 외국것을 사다 먹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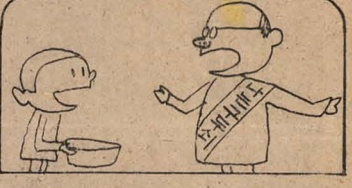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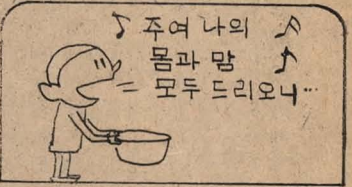
이제 비까지도 우리들을 외면했습니다. 뉘뉘만한 머리로 만들어낸 살인무기들의 경쟁이 이상기를 현상을 내게 했다지만, 비 안오는 것이 이땅에서 벌어지는 천대만상의 죄악과 부정의 업보인것같이 느껴져 더욱 두렵습니다.

공산당과는 가장 거리가 먼 가톨릭 노동청년회나 농민회와 도시산업 선교회를 공산당으로 몰아부쳐, 종교를 국민들과 멀어지게 이간시켜, 오히려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현실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느님앞에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 용서를 빕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악으로 우리를 목졸라 정의를 질서시키는 그들의 마음에도 하느님의 뜻이 뜨겁게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는 꽃피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고통을 주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 요셉이 (253) 김병오



進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體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박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운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 원 모 집**

용모 단정하고 요리솜씨 있으면  
분으로 30~50세 정도의 가톨릭 신  
자에 한함

①구비서류...이력서·본당신부 추천  
(각 1통)  
②접수마감...6월15일까지, 본인 직  
접 면담 바람  
③근 무 처...전주 가톨릭 여학생관  
(전화 ☎3955)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교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 시내버스 승차장 )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지성인들을 위한 신앙강좌(9일<금>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강당)
  - ① 강사-박도식 신부(철학박사, 광주 대건 신학대학 교수)
  - ② 여러분의 신앙공부와 친구분의 안내를 위해서 누군가를 모시고 오세요
- 제 5차 여성 꾸르실로의 성공을 비는 빨랑까와, 꾸르실리스타들의 참석 바람
  - ① 마나니따-6일 새벽 4시 반, ② 폐회식-6일 오후 6시
- 전주시내 학생체육대회(11일<일> 해성 중 고등학교) 운동장 관제로 연기됨
- 전주시내 교리교사 야유회(북적지-김재 관당대, 6일 9시까지 금암동 합동배차장에 집합)
- 제 2 지구 울드레아(여성 5차 꾸르실리스타 환영)-9일<금> 오후 2시, 둔율동 성당
- 교리교사 연합회, 각 분당 순방 예고
  - 10일<토>-수류·순창(오후 2시), 원평(오후 5시)
  - 11일<일>-신태인·장계·임실(11시), 정읍·장수·남원(2시), 부안(5시)

(중암)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 응 목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 프란치스코 3회: 4일 오후 1시 30분
- 신자 재교육 (오후 8시~9시 30분, 강당)
  - ① 5일(월)-고사동 ② 6일(화)-경원동
  - ③ 7일(수)-태평동 ④ 8일(목)-서노송동
 ※ 지참물: 성경, 성가집
- 삼지회 부부 친목회-6일(화) 오전 8시 장소: 성당
- 환자 영성체: 7일(수) 오전 10시
-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강사: 박도식 신부)  
시간: 9일(금) 저녁 8시 장소: 가톨릭센터
- 대학생 교양강좌: 일시-6월 10일 오후 5시  
장소: 대학생활의실 강사: 서경전교수(원광대학교)  
내용: 원불교의 가르침

□ 지난주 봉헌금: 135,88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룩

- 애령회 학생회 월례회: 금일 공식미사후
- 추도미사: 공신부님 모친(로사리아)의 추도미사가  
금일 오전 10시 분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 첫 영성체 교리반: 첫 영성체 하지 못한 중·고등학생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 어린이 영성식: 6월 10일(토) 오후 5시 대부모님  
모시고 30분전에 나오세요
- 중노1가 가정방문: 6일(화), 8일(목)
- 남노송동 반회합: 6월 5일(월) 평화반과 형제반

□ 지난주 봉헌금: 68,86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사도 회장 유 제 상

- 서로 인사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친밀한 대화를 갖도록 합시다
- 교무금 독려의 달: 교무금 완납하여 본 당운영 도움  
시다
- 미사시간은?: 늦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앉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 회의실을 깨끗이: 회원님들 회합이 끝나고 나서는...
- 미사 참례때 당신은 성서 생가집 기도서를 갖고 계  
시는지요
-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주신분 감사합니다
-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임병순, 이철중, 김용환

□ 지난주 봉헌금: 65,55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6월은 예수 성심성월

-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사제관회의실)
-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이경호형제막)
- 봉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봉투에 남부계 미납계를 기재하였으니 보시고 미수  
가 없도록 합시다
-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6월 6일<화> 서용현, 7일<수>김성원, 8일<목>양성남  
9일<금>홍안나, 10일<토>임한철, 11일<일>이갑철,  
12일<월>송글라라, 13일<화>이갑철, 14일<수>최재홍

5. 학생회 월례회: 6월 4일

□ 지난주 봉헌금: 141,755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훈

- 사도회 확대회: 10시 미사후  
(반장님까지 전원 참석요망)
- 반상회 9월6일-1반 6월7일-2반 6월8일-3반  
6월9일-4반
- 어머니회 활동-사제관 개축기금 위해 기름, 비누,  
미원 등 판매하오니 많은 협조 바람
- 신용조합 이사회-6월 5일 있음

□ 지난주 봉헌금: 44,13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훈

-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사도회임원,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람)
- 첫 영성체 교리에 빠짐없이 보내주시도록...
- 미사시간 변경: 6월 1일부터  
주일: 아침 5시반, 공식 10시, 저녁 8시  
평일: <월, 수, 금> 아침 5시30분  
<화, 목> 저녁 8시  
<토> 오후 3시30분-아동, 저녁-중고생미사

□ 지난주 봉헌금: 103,180원

(파티마)

전화 ⑦249

주임 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가정방문 일정
  - 6. 2<금> 이서공소 6. 6<화> 서완산동
  - 6. 7<수> 서완산동 효자1가(안행동) 공무원아파트
  - 6. 8<목> 효자1가 효자2단지 6. 13<화> 에그린 효  
자1단지 6. 14<수> 효자2가 6. 15<목> 기타
- 비품을 마련해 주신분 박영경(도밍고) 캐비닛 1대
- 교적정리  
살고있는 지역 분당으로 교적을 옮기셔야 합니다.
- 성가대 모집: 6월 10일 오후 5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31,105원 성모의밤 봉헌금 14,89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현  
보좌 신부 유 종 석  
사도 회장 유 유 증

※ 6월은 예수 성심성월

- 사도회: 저녁 미사후 성화회: 10시 미사후  
유아세례: 2시 미사후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오후 2시)
- 주일학교 야외미사 (오후 2시 임업시험장)
- 가정심방: 교동일부
- 환영: 권비안배 수녀
- 견진사진 사무실에
- 성당의자 신청자 명단 (제 3면 참조)